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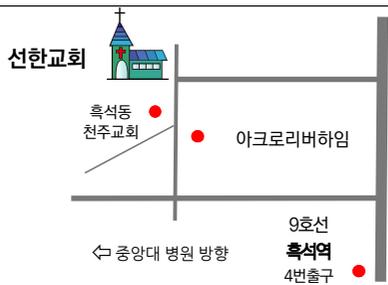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2: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외협력선교사	이금춘, 김인실
	박 희 태, 유 신 웅		조나단, 강야엘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석규
	조 윤 익, 박 영 근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50)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 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10장 (통일찬송가 34장)

교 독 문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찬 양 과 경 배 266장 (통일찬송가 200장)

기 도 합심기도

말 씬 봉 독 고린도전서 15장 42 ~ 58절

설 교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잠언 강해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 10월 17일 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1. 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1시에 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2. 주중예배: 금요기도회 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읽기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성 경 통 독

김계순, 김대회, 김점분, 박영근, 백영미, 오인숙,
오효남, 유신웅, 장혜선, 조계승, 최윤정
시상은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4.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예배가 회복 되도록

찬송 :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새 337장)

본문 : 욥기 5장 27절

“불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 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세 친구가 그를 찾아옵니다. 세 친구는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욥기 전체에서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의 핵심은 비슷합니다.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다스리심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고난에 대해 스스로 '연구한' 것을 토대로 말할 뿐입니다. 신학적으로 혹은 인생의 경륜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된 말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진창에서 구해내려고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의 어려움을 듣고 달려왔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욥의 처지나 상실에 대한 이해나 위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25절에서 엘리바스는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라는 말로서 욥의 죄로 인해 욥의 자녀가 죽었다는 것을 돌려서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 세 친구에게는 사랑도 없었고 참된 것도 없었습니다.

고통받는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사람의 연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주인의 음성을 듣고 달려간 양은 안식을 누립니다.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욥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단 한순간도 사랑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욥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는 꼭 죄가 아닐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과 우리에게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눈길로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왜 침묵하시는지 의아할 때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 3:1)

제목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고전15:42-58)

서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이 변화될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부활의 모습

- (1) 질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35절)
- (2)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있다(40절)
- (3)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44절)
- (4) 마지막 나팔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51절)
- (5)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58절)

본론

2. 교훈

- (1)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것은 어떤 유익을 주는가?
- (2) 죽은자들은 어떤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가?
- (3)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결론

부활을 믿고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합심기도

합심기도

매일 Q.T.		고통 중 가장 큰 기쁨,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	날짜 : 10월 11일
찬양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본문	욥기 6:1-13		
말씀요약	욥은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워 자신의 말이 경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위로받고 기뻐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무기력함을 토로하며,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과 능력이 없음을 한탄합니다.		
목상질문 1	탄식에는 이유가 있다 6:1-7 괴로움이 바닷모래보다 무거운 것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고통의 강도는 어떤가요? 고통 때문에 내게 거친 말을 하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목상질문 2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기를 6:8-13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욥이 간절히 바란 것은 무엇이었나요?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확신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게 할까요?		
한절목상	욥기 6장 9-10절 우리는 고난 속에도 주님은 계신다고 말합니다. 혹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은 종종 잊곤 합니다. 이것을 잊은 채 건네는 위로는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욥의 반응처럼 듣는 사람을 격양시킬 뿐입니다.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선부른 위로나 교훈이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키는 무언의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적용			
오늘의 기도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에 도전을 받습니다. 죽음을 구할 만큼 버텨 내기 힘든 현실일지라도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의 신음을 듣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기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새 438, Ab→G)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영국 작가 프랜시스 톰슨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며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신부나 의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는 젊은 날 마약에 빠져 런던의 빈민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을 사냥개처럼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을 따돌릴 수 없었고, 결국 그는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그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천국의 사냥개'라는 기념비적인 시를 썼습니다. 그의 시를 묵상하다 보면 자기 백성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로 찾아가셨으며, 절망하고 탄식 가운데 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 베데스다 연못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어서 썩어 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추적하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상처와 절망과 죽음의 냄새를 맡고 심 없이 목표물을 향해 달리는 사냥개처럼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추적하셨고 결국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로...”(프랜시스 톰슨 '천국의 사냥개' 중에서). 내 인생을 감찰하시며 끈질기게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나요?		
말씀 나누기	욥기 7:11~21		
목상포인트	우리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죽음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죽음이 그 고난을 끝낼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라 불렸던 욥도 극심한 고난 앞에서 죽기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탄식에는 자신을 구원할 이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죽을 것 같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신 하나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욥은 자신이 당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나요?(15절)		
적용하기	삶에서 경험한 극심한 고난을 돌아보며, 당시에 나는 어떤 고백을 했는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제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바를 알게 하소서. 순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교리적 공의의 잣대로는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날짜 : 10월 15일
찬양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본문	욥기 8:1-7		
말씀요약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불평을 듣고 질책합니다. 빌닷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상질문 1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8:1-3 빌닷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관해 확신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확신이 주는 유익과 더불어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8:4-7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말이 욥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맥을 고려한 말씀 목상이 왜 필요한가요?		
한절묵상	욥기 8장 3절 빌닷은 욥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릇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욥과 그의 가족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결국 그들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은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빌닷의 권면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왜 비극과 애매한 고난이 늘 존재해 왔는지’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민 없이 말하는 ‘정답’은 해결책이 아닌 폭력이 되기 쉽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함부로 단정 짓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습니다. 제 고난은 위로받기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난은 판단하려고 했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구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진실한 친구가 되게 하소서.		

매일 Q.T.		이해하고 동정하는 진정한 친구입니까?	날짜 : 10월 12일
찬양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본문	욥기 6:14-30		
말씀요약	욥은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 친구들을 개울처럼 변덕스러우며, 두려운 일을 보고 겁낸다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허물이 있으면 가르쳐 보라고 하며, 친구들을 향해 고아를 제비 뽑고 친구를 팔아넘기는 자들이라고 질책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가 건재하니 친구들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합니다.		
목상질문 1	‘아무것도 아님’이 된 친구들 6:14-21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그의 친구들은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나요? 고통당하는 이에게 나는 어떤 친구로 인식될까요?		
목상질문 2	친구들아, 제발 돌이키라 6:22-30 욥이 친구들에게 진정으로 바란 것은 무엇인가요? 고통당하는 친구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한절묵상	욥기 6장 15절 욥은 자신이 겪는 ‘부당한’ 고난을 누군가 알아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형제라고 부를 만큼 가까웠던 친구들의 태도에서 욥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친구들이 보여 준 우정은 급하게 흘러, 필요할 때 길어서 쓸 수 없는 ‘개울의 물살’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 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요 사랑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제가 늘어놓았던 틀에 박힌 조언이나 긍휼 없는 책망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더 괴롭히는 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든지 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시는 주님! 제 속에 주님의 마음을 넘치게 부어 주셔서 강박한 태도를 버리고 잠잠히 함께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매일 Q.T.		한날 바람에 불과한 인생임을 기억하소서	날짜 : 10월 13일
찬양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본문	욥기 7:1-10		
말씀요약	품꾼이 샅을 기다리면서 힘든 노동을 참아 내는 것처럼, 욥은 인내하며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자신의 날은 베틀의 복보다 빨라 희망 없는 시간이 되어 흐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바람 같음을 생각해 달라고 간구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상질문 1	품꾼의 날과 같은 인생 7:1-6 욥의 인생이 '힘든 노동', '품꾼의 날'로 묘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미와 희망이 가득 찬 삶을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상질문 2	한날 바람과 같은 생명 7:7-10 욥은 친구들을 향해 말하다가 왜 하나님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한절묵상	욥기 7장 4절 욥의 절규는 믿음 없는 절망과 원망의 소리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지금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절규는 전통적이고 신학적인 대답에 어설피 타협하지 않고, 극심한 고통을 낳는 그대로 버티 내면서 하나님 답을 듣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믿음의 외침입니다. 겿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치열하셨습니다. 지금도 피땀 흘리듯 치열하게 기도할 일이 내 안에, 그리고 세상에 참 많습니다. 졸 때가 아닙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표현하기조차 힘겨운 아픔으로 유난히 긴 밤을 지날 때 그 어둠을 함께 지새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소서. 괴로움에 잠겨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묵묵히 기다리게 하소서. 부드럽게 안으시는 주님의 품에서 평안한 잠을 누리게 하소서.		

매일 Q.T.		극한 고통에서 주권자의 감시와 억압을 느낄 때	날짜 : 10월 14일
찬양	찬송가 458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본문	욥기 7:11-21		
말씀요약	욥은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두렵게 하시는지,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는지 괴로워하며 묻습니다. 욥은 자신이 죄를 지었던들 하나님께 해가 되지 않는데 왜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는지 묻습니다.		
목상질문 1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7:11-15 욥이 경험한 하나님의 '지키심'은 어떤 것이었나요?(12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키심'은 인도와 보호인가요, 감사와 억압인가요?		
목상질문 2	제발 나를 내버려 두소서 7:16-21 시편 8편 4절을 인용해 욥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17-18절) 하나님이 내 잘못을 크게 문제 삼으시는 때는 언제인가요?		
한절묵상	욥기 7장 17-18절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시8:4)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욥과 다윗의 고백은 닮았지만, 욥의 말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냉소와 항의였습니다. 욥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은 그분 백성이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파하심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아시기에 어떤 호소도 받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제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때로 숨 막히는 감시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켜 주심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안임을 기억하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